佐藤本『華嚴文義要訣問答』의 符號口訣과 8세기 新羅의 文法 形態

박용식*

要約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에 기입된 符號口訣에 관한 연구는 한·일 양국의 한문 讀法과 한문의 自國的 수용 양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에서 이 자료에 기입된 부호구결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신라의 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글에서는『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토의 기능을 8세기 신라 이두 자료의 표기에 반영된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 했던 21(·)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句節線과 逆讀線의 기능을 고려하여, 懸吐者가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는 구문으로 分節한 후에 21(·)의 기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에서 21(·)의 기능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말음첨기로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21(·)의 기능과 8세기 신라 이두자료에서 '以'로 표기되는 형태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핵심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口訣, 吏讀, 點吐, 21(·), 31(·), 오코토點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리각 연구교수

1. 서론

佐藤本『華嚴文義要訣問答』(이하『要決』)은 신라 黃龍寺의 表員이 集한 것이지만 신라에서는 유통된 기록이 없고, 오직 일본에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要決』의 부호구결 또한 신라의 口訣인지 일본의 訓點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要決』에 기입된 부호구결의 국적은 그 기능이 한국어의 특성을 보이는지 일본어의 특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료의 해독을 포함한 부호구결의 기능에 논란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으로 결정짓기는 쉽지 않게 된다.

『要決』은 8세기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문법 형태를 朱點으로 표기한 부호구결의 기입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1] 이런 점에서 이 부호구결과 같은 시대의 신라 자료에 표기되는 문법 형태와의 비교 연구는 이 부호구결의 기능을 밝히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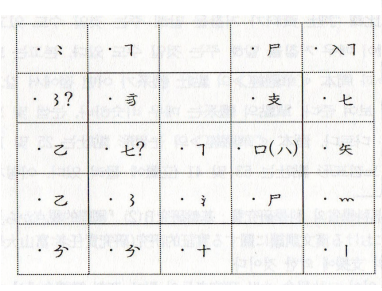
『要決』에는 모두 7종의 點吐가 있는데 다른 점토에 비해 해당 글자의 왼쪽 중앙에 찍은 점토인 21(·)의 기능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알려진『要決』의 부호구결과 8세기 신라의 자료에 표기되는 문법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21(·)의 기능을 고찰할 것이다.『要決』의 부호구결이 신라의 구결이라면 8세기 당대의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와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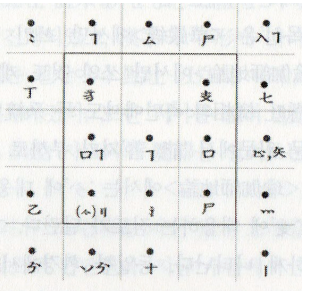
『要決』부호구결의 기능은 小林芳規(2002)에서 11세기의 자료로 추

1)『華嚴文義要訣問答』의 유통과 문헌학적인 특징은 김천학(1998)과 정재영(2009)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되는『華嚴經』에 나타나는 점토구결을 기준으로 검토한 이후로 이후의 연구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화엄경』의 點圖는 아래와 같다.[2)]



晉本 華嚴經의 點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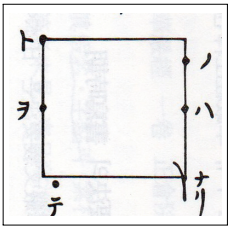
周本 華嚴經의 點圖

위 화엄경의 點圖는『要決』의 點圖와 상당히 유사하다. 위 點圖를 기준으로 할 때 11(·)의 'ㅅ', 31(·)의 'ㄹ', 51(·)의 'ㅁ', 25(·)의 'ㅣ' 그리고 55(·)의 'ㅣ' 등은『要決』의 것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33(·)의 'ㄱ'도 글자의 오른쪽으로 수평이동하면『要決』의 것과 일치하게 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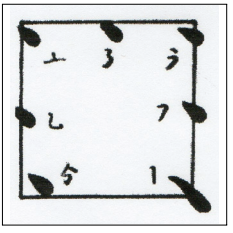
『要決』부호구결의 양상과 그 기능은 小林芳規(2002), 김영욱(2003), 小林芳規(2004), 小林芳規(2006), 김성주(2009ㄱ)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제시된 點圖는 아래와 같다.

2) 晉本『華嚴經』의 點圖(卷20)는 朴鎭浩(2006:174)의 點圖이며, 周本『華嚴經』의 點圖(卷36)는 朴鎭浩(2003:213)를 바탕으로 장경준(2008:79)에서 제시한 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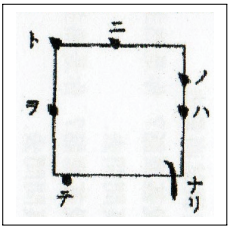
3) 小林芳規(2002:66~68, 2006:21~24)는 한국에서 발견된 11세기의『화엄경』에서 사용된 점토와『要決』의 점토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의 오코토點이 한국의『화엄경』의 전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小林芳規(2002)의 點圖



김영욱(2003)의 點圖



小林芳規(2006)의 點圖

小林芳規(2002)는『要決』부호구결의 點圖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였다. 佐藤本에 주황색으로 기입되어 있는 점과 다른 부호들이 일본의 古訓點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자료가 한국의 華嚴經 口訣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영욱(2003)은 小林芳規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화엄경』구결을 기초로 논의하였으며『要決』의 부호구결이 한국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부호구결 가운데는 말음첨기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2(·)를 최초로 발견하여 그 기능을 처격조사인 'ᄋᆡ'로 보았다. 김영욱(2003)의 點圖는 小林芳規(2002/2006)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각 부호구결은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일본어가 아닌 한국의 구결로 본 점과 31(·)을 小林芳規(2002)와 달리 21(·)로 파악하여 논의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11 • 명사구 접속 기능 또는 연결 기능 ㅅ/ᄉᆞ 또는 ㅅ	12 • 처격 기능 ᄋᆡ (ㅓ 또는 ᄋᆡㅓ)	13 • 속격 기능 ㅣ 또는 ᄋᆡ
		23 • 주제 기능 또는 동명사 기능 ㄱ
21~31 또는 21 • 연결 기능 ᄋᆡ?		33 ㅣ 또는 • (평서형) 종결 기능 ㅣ

〈김성주(2009ㄱ)의 點圖〉

김성주(2009ㄱ)에서 제시한 點圖는 위와 같다. 이러한 點圖의 특징은 각 위치의 부호구결이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김성주(2009ㄱ)의 點圖는 기존의 21(·)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1(·)의 單點도 김영욱(2003)과 같이 21(·)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1(·)이 'ㄹ/ㅋ'라는 기존의 논의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이 點圖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였다. 21(·)이 대격조사 기능을 하는 'ㄹ'이 아니라는 논의는 『要決』 강독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1(·)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위 點圖에서는 '연결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충 논의가 필요하다. 아래 '3.'에서 21(·)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재검토하고 그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3. 8세기 신라 자료에 표기된 문법 형태

『要決』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세기의 자료는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를 들 수 있다. 『要決』이 『八十華嚴經』의 주석서인 반면 이 자료는 바로 이 『八十華嚴經』의 寫經造成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755년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도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의 이두문도 『要決』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華嚴 僧侶가 작성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있는 중요한 몇 구절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賜 第一 恩 賜 父 願 爲 爲內**弥** 第二 法界一切衆生 皆 成佛欲 爲賜**以** 成賜乎 經**之** 成內法**者** 楮根**中** 香水散尒 生長令內**弥**[4]

4)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의 판독과 해석은 남풍현(2000:200~240)을 바탕으로 하였다.

(1') 이룬 願旨는 皇龍寺 緣起法師가 삼으셨으니 第一은 恩惠를 주신 父의 願을 위하여 삼으셨으**며** 第二는 法界一切衆生이 모두 成佛을 하고자 하신 **까닭으로** 이루시었다. 經**의** 이룬 法**은** 楮根**에** 香水를 뿌리며 生長시키며

(2) 右念行道爲 作 處中 至**者** 三歸依尒 三 反 頂禮爲內 佛 菩薩 華嚴經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 昇 經 寫在如

(2') 右念行道하여 만드는 곳**에** 이르**면** 三歸依씩 세 번 頂禮하고 부처와 菩薩과 華嚴經들을 供養한 以後**에** 坐에 올라 경을 쓴**다**.

(3) 經 寫 時中 竝 淳淨爲內 新淨衣 褌水衣 臂衣 冠 天冠等 庄嚴**令只者** 二 靑衣童子 灌頂針 捧弥,

(3') 經을 쓸 때에 모두 淳淨한 新淨衣, 褌水衣, 臂衣, 冠, 天冠 등으로 장식 시**킨** 두 靑衣童子가 灌頂針을 받들며,

위에서 보조사 '-은'의 기능을 하는 (1)의 '願旨**者**, 法**者**' 등의 '者'와 '조건'의 어말어미와 동명사형어미 기능을 하는 (2)의 '至**者**'와 (3)의 '庄嚴 **令只者**' 등의 '者'는 『要決』의 23(·)에 대응한다.[5] 그리고 (1)의 '旀, 之, 中'은 각각 31(·), 13(·), 12(·)에 대응한다. 또한 (2)의 '如'는 33(·)에 대응한다.

한편 위 자료에서 (1) '爲賜**以**'의 '以'가 '3.'에서 논의하게 될 21(·)에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要決』의 부호구결 가운데 공동격조사와 어말어미 구실을 하는 11(·)에 대응하는 형태[ㅗ/ㅣ]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를 위 (1, 2, 3)에서 모두 확인한 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8세기의 차자표기 자료에는 주격조사와 대격조사, 공동격조사와 '爲良/ᄒᆞᆫ'의 '良/ᆫ'에 해당하는 어말어미 등의 각 형태들은 존재했을 것으로 보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형태들

5) 23(·)이 주제의 보조사뿐만 아니라 동명사형어미, '조건'의 어말어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정재영(200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要決』의 부호구결이 신라의 구결임을 밝히는 논거가 된다.

의 표기는 11세기 이후의 이두자료나 구결자료에 나타난다. 이러한 8세기 자료의 표기법적인 특징은 『要決』의 點吐의 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要決』의 부호구결은 8세기 자료에서 표기에 반영되는 주요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1(·)의 기능을 지금까지는 대격조사 'ᄅᆞ'이나 연결어미 'ᄉᆞ'로 보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두 형태는 8세기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8세기 이두 자료의 표기법적인 특징은 21(·)의 기능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볼 여지를 남긴다.

한편, 아직 가설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처럼 『要決』의 點吐가 11세기 『화엄경』에 비해 素朴하거나 다소 원시적인 형태를 띠는 원인이 차자표기 자료의 표기법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본 오코토點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도 새로운 단서를 마련해 준다.

石塚晴通(2002:125)은 일본어 초기 훈점 자료에서 발생기의 오코토點이 원시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돈된 모델의 移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약 800년~810년경에 발생하여 20~30년 사이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 일본의 오코토點이 초기의 것은 『要決』의 것과 같이 아주 소박한 형태를 띠는 이유는 일본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8세기에 전래된 최초의 모델이 소박한 형태이며, 이러한 형태의 點圖가 신라의 8세기 자료에서 문법 형태의 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石塚晴通(2002)의 논의는 재검토해야 된다.

3. 21(·)의 기능

『要決』에서 각 點吐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위

에서 논의한 차자표기법의 전개 양상과 문맥뿐만 아니라 『要決』에 기입된 다른 부호와의 관계이다. 특히 21(·)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句節線과 逆讀線 그리고 語順指示이다.

(4) 〈佐藤本 16:05-06〉 不據自體[주서__]故非相即[주서__]力用交徹[주서__]故成相入

(4') 〈연구팀 번역〉[6] 自體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相卽이 아니며, 힘의 작용이 교차하기 때문에 相入이 이루어진다.

(5) 〈佐藤本 02:02-03〉 以須弥山聚筆四大海水墨**書[주서 ㄷ]**一品脩多羅[주서 ㄴ]釋不能窮盡

(5') 〈연구팀 번역〉 須彌山으로 모은 붓과 四大海의 물로 먹을 만들어, 한 品의 修多羅**를 쓰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다

『要決』에서 구절선은 전체 500여 개의 부호 가운데 300개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호보다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단지 구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종결어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결어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어미 기능을 할 때는 위 (4)와 같이 인과관계나 대등적 연결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5)는 역독선과 어순지시 부호가 사용된 구문인데 이러한 부호를 통해 '一品脩多羅'는 '書'의 목적어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要決』에 사용된 부호 가운데 위 (5)와 같은 역독선과 어순지시부호의 기능은 해당 구절을 동사나 목적어로 해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역독선과 어순지시 부호는 『要決』에서 서술어

6)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2008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에 선정된 '古代 韓日 兩國의 漢字·漢文 讀法과 自國的 受用 樣相에 대한 硏究'[과제번호: KRF-2008-322-A00057]의 연구팀을 말한다. 이 글의 〈연구팀 번역〉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팀이 매주 강독회를 통해 마련한 번역이다.

와 목적어를 지정하게 됨으로써 대격조사 표지를 따로 설정하는 것은 잉여적인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21(·)이 대격조사 표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방증 자료가 된다. 이로써 구두선과 역독선의 용법도 21(·)의 기능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분분임을 알 수 있다.

21(·)은『要決』에서 3회 나타난다. 단 1회 나타나는 31(·)도 21(·)로 본다면 4회 나타나는 셈이 된다. 이 글에서는 왼쪽 사진의『要決』7장 28행의 '令' 왼쪽 아래에 찍힌 점토가 31(·)인지 21(·)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31(·)로 규정한 뒤 21(·)일로 볼는 가능성도 열어 둔다. 이러한 31(·)은 단 한 예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單點의 위치도 21(·)과 31(·)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3.3.'에서 논의하겠지만 그 기능을 '인과관계'의 연결어미로 해석해도 되고 '병렬'의 연결어미로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令[31(·)]은 21(·)로 볼 수도 있고 31(·)로 볼 수도 있다.


〈7:28〉

3.1. 還[21(·)]

『要決』에 나타는 21(·)은 '環[21(·)]〈5:25〉, 餘[21(·)]〈7:04〉, 引[21(·)]〈7:28〉' 등이다. 이들을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還[21(·)]을 기존의 논의에 따라 재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의 사진은 '還[21(·)]〈5:25〉'이다. 이를 보면 '還[21(·)]' 바로 앞에 역독선이 있으므로 '還[21(·)]'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還[21(·)]'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 앞 문장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6) 〈05:23-25〉 舍那与證處[주서＿]同遍法界設於東方證法(來)處[주서＿]彼有[주서 ㄱ]舍那[주서 丨]**還[21(·)]**有東方而來作證



〈05:25〉

處[주서_]彼有[주서ㄱ]舍那[주서ㅣ]**還[21(・)]**有東方而來作證

(6') 〈연구팀 번역〉 盧舍那佛과 (진리를) 證得한 곳이 같이 法界에 遍滿하여 東方에서 施設되어 法을 동쪽의 곳에서 證得한 것이다. 그곳에는 盧舍那佛이 있어 **도로** 東方에 있어 와서 證得하였다.[7]

〈연구팀〉에서는 '還[21(・)]'을 '有東方而來作證'을 수식하는 문장 부사인 '도로'로 번역하였다. 김천학(1998)과 박상수(진행중)의 번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천학 번역〉 노사나와 (진리를) 悟證하여 온 곳에 저 노사나불이 있음은, (이것은) **곧** 동방이 있어 (이에 노사나불이 동방으로) 와서 悟證을 한 것이다.

〈박상수 번역〉 노사나불과 증득한 곳이 함께 법계에 편만한 것이다. 가령 동방에 대하여 말하자면, 법을 증득한 곳이 동쪽이니 거기에 노사나불이 있어 **다시** 동방에 와서 증득한 것이다.

위의 번역은 '還[21(・)]'을 '곧, 다시'로 번역하였는데 '還[21(・)]'을 부사로 파악한 점은 〈연구팀〉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김성주(2009ㄱ:77)도 부사로 파악하여 '여전히'로 보고 있다. 반면 김영욱(2003:65)은 21(・)을 '乙'로 파악하여 '還[21(・)]'을 '*도를'로 재구하였다.

이 글에서는 '還[21(・)]'의 기능을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도로**'로 파악한다. 그리고 '還' 왼쪽 중앙의 부호구결은 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幷以'의 '以'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8세기 이두 자료에 '以'가 부사형 접미사 혹은 말음첨기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다.

---

7)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인용문과 번역문은 『華嚴文義要決問答』 연구팀에서 사용하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7) 永泰 二年 丙午 七月二日 釋法勝 法緣 二僧 **幷以** 奉〈永泰二年銘石盒 766〉[8]

위 예문의 '幷以'의 '以'는 還[21(・)]을 '도로'로 보았을 때 21(・)의 기능과 완전히 일치한다.[9]

3.2. 餘[21(・)]

다음 사진은 餘[21(・)]〈7:04〉이다. 이 사진을 보면 餘[21(・)]가 속한 구문은 '荅'으로 시작하므로 물음에 대한 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餘[21(・)] 바로 다음 글자인 '不'에 어순지시 표시인 ' ㄱ'가 있고 '餘'에 역독선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07:04-05〉 荅此即是餘[21(・)]不ㅁ주서 ㄱ]待說餘[주서 ㅣ]

(8') 〈연구팀 번역〉 답한다. 이 시기가 곧 **나머지 시기이어서**, 나머지 시기를 說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나머지 시기를 말할 필요가 없다.)

---

8)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두자료의 예문은 남풍현(2000:328~449)을 바탕으로 하였다.

9) 한편 8세기의 자료는 아니지만 석독구결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環'을 '도로' 훈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예다. 이는 『要決』의 '環31(・)'도 '도로' 볼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된다. 이러한 예는 안대현 선생이 제공해 주었다.

(1) (菩)薩力乙 (以) {故ノ} **還ノ** 得ㅋ 不墮ンㅋ 損傷ノ尸 無{有}ンㅋ〈금광06:12-06:15〉

(2) 白法ㅋ十 **還ㄷ** 尒所ア 有ンㄱㅗ {於}二種 不淨想乙 修ノ仝七 中ㅋ十 當ハ 知ㄷㅣ〈유가10:13-15〉

(3) 是 如ㅊンㄱ 六種 所對治七 法ㅋ十 **還ㄷ** 六法ㅂ 能ㄱ 對治ㅂ尸{爲}入乙ンㅋ 多ㅂ 所作 {有}ㅛㅌ 有ンㄱㅗ〈유가10:23-11:02〉

(4) 此 所治七 法ㅋ十 **還ㄷ** 十一ㅂㄱ 此 與七 相違ンㄱ 能對治七 法ㅂ 能ㄱ〈유가12:13-18〉


07:04

〈연구팀〉의 번역은 '餘'의 왼쪽 중앙에 찍은 [21(・)]을 대격 조사인 'ㄹ'로 보지 않고 연결어미로 파악한 번역이다. 김천학(1998)의 번역은 이와 비슷하고 박상수(진행 중)는 의역을 했는데 '餘'를 명사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김천학 번역〉 답한다. 이 시기가 즉 나머지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박상수 번역〉 대답 : 이 시기가 곧 나머지 설하지 않는 시기이고,

한편 김영욱(2003:65)은 위 문장을 '이것이 곧 나머지이므로 나머지 설을 기다라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餘[21(・)]을 '나ᄆᆞᆯ'로 재구하였다. 還[21(・)]의 경우와 같이 21(・)을 말음첨기로 본 것이다. 반면 김성주(2009ㄱ:78)는 餘[21(・)]을 '나머지 時期이어서'로 보고 있다.

위 구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앞 문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구문은 아래 물음에 대한 답이다.

(9) 〈07:03-04〉 問若尒諸時相望攝相力齊何要在此[주서_]不[주서 ㄱ]在餘時[주서 ㅣ]

(9') 〈연구팀 번역〉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時期가 서로 바라보고[望] 서로 包攝하는 힘이 같을 것인데, 어찌 모름지기 이 時期에만 있고 **나머지 時期**에는 있지 않는가?

위 구문을 보면 '此即是餘'의 '餘'는 위 바로 앞의 문장인 '餘時'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餘'를 '나머지 시기'로 번역하는 것이 친절한 번역임을 알 수 있다.

'此即是餘不待說餘'를 『要決』의 기호에 따라 분석해 보면 '不待說餘'에서 '不'에 어순표시가 있으므로 '不'이 서술어가 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의 현토자는 '此即是餘 不待說餘'로 분절하여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현대국어의 직관으로 구결을 붙이면 '此即是餘{이니, 이어서, 이므로} 不待說餘이다.' 정도가 적합하다. '此即是餘'와 '不待說餘'는 곧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구문인 것이다. 두 구문이 인과관계로 파악한 것은 기존의 견해와 다르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餘'의 오른쪽 중앙에 찍힌 21(·)의 기능을 인과관계의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단지 8세기 자료에는 '-이니, -이어서'에 대응하는 형태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21(·)은 '-이므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구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0) 此即是餘**이므로** 不待說餘이다.
(10') 이것이 곧 나머지 시기**이므로**, 나머지 시기를 說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8세기 자료에서 인과관계의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은 '以'이다.

(11) 法界一切衆生 皆成佛欲 **爲賜以** 成賜乎〈佛華嚴經寫經 755〉
(11') 法界一切衆生 皆成佛(道)케 하고자 하시므로 이루시었음

위 (11)의 해석은 남풍현(2000:230)의 것인데 이 글의 견해와 일치한다. 여기에서 '爲賜以'는 남풍현(2000:2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爲賜隱以' 정도의 구문에서 동명사어미 '隱'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爲賜以'의 8세기의 재구형으로는 '*ᄒᆞ신으로'가 되며 현대역은 '하셨으므로'가 된다. 여기서 '-으로'는 기원적으로는 도

구격조사이지만 이미 문법화되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餘'의 왼쪽 중앙에 찍은 21(·)은 8세기 자료의 '爲賜以'의 '以'의 기능에 대응하므로 21(·)의 기능은 '-으므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引[21(·)]

『要決』에 나타나는 세 개의 21(·)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引[21(·)]이다. 이 구문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要決』에서 오직 한 예만 나타나는 31(·)도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句節線과 合符로 보아 왔던 수직선뿐만 아니라 역독선과 어순지시부호 등 다양한 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4)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들 토의 기능을 고려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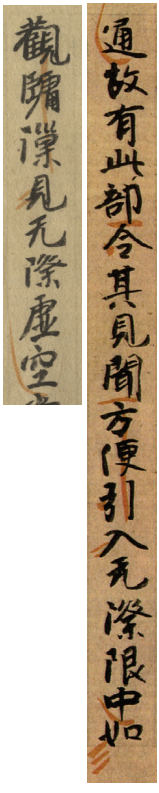
(14)〈07:28-30〉 令[31(·)]其見聞[주서_]方便引[3자합부,21(·)]入[주서ㄷ]无際限中[주서ㅣ]如[주서ㄷ]觀牖隙[3자합부]見[주서ㄷ]无際虛空[주서ㅣ]

(14')〈연구팀 번역〉 01그 보고 듣는 **方便引을** 无際限 中에 들게 하니 창틈을 보아 无際한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

02그 보고 듣는 것으로 하여금 **方便으로 이끌어서** 끝없고 한없는 가운데에 들게 함은 마치 창문의 조그만 틈을 보고서도 끝도 없는 虛空을 보는 것과 같도다.

03그 보고 듣는 것으로 하여금 **方便으로 引하여** 无際限 中에 들게 하니 마치 창문 틈으로 무한한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

위 (14) 해석은 '方便引'과 '觀牖隙'을 관통하는 수직선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연구팀〉에서는 아직까지 이 수



07:28-29

직선의 기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方便引[3자합부,21(·)]을 '方便引을'이라고 번역한 〈연구팀 01〉의 번역은 21(·)을 김영욱(2003:64)의 논의를 고려한 번역이다. '方便引'과 '觀牖隙'을 관통하는 선을 합부로 보고 이들을 하나의 개념어로 보고 21(·)을 대격조사로 규정한 번역이다. 반면 '02, 03'의 번역은 '方便引'과 '觀牖隙'의 '引'과 '觀'을 동사로 보고 21(·)을 연결어미로 규정한 번역이다.

김천학(1998), 박상수(진행 중)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Y〈김천학 번역〉 그 보고 들은 자를 제한이 없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이니**, 마치 창문 틈으로 무한한 허공을 내다보는 것과 같다.

Z〈박상수 번역〉 그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방편으로 제한이 없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 마치 창문 틈새로 제한이 없는 허공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위의 번역과 〈연구팀 02, 03〉의 차이점은 '方便引[3자합부,21(·)]入[주서 ㄱ]'에서 '引'과 '入' 사이에 구절의 경계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引入'을 동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김성주(2009ㄱ:78)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15)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끝없고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 들이는 것은 마치 조그만 틈을 보고서 끝없는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 〈김성주 2009ㄱ:78〉

위 (15)의 번역은 김천학(1998), 박상수(진행 중)의 것과 유사하다. '方便引|3자합부,21(·)|入|주서 ㄱ|'의 '引入'을 '끌어 들이는'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구문에 사용된 여러 부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토자가 파악한 구분의 분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번역한다. 현토자가 파악한 구문대로 번역해야만 각 부호구결의 기능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7장 26행의 구문은 이 구문에 사용된 구절선을 고려하면 현토자는 (14)를 다음과 같이 분절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令其見聞 **方便引** 入无際限中 **如 觀牖隙 見**无際虛空' 이 구문에서 '入无際限中'은 '入'에 어순표시가 있으므로 '无際限中에 入하다'정도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如'에는 어순표시 'ㅌ'이 있고 '見'에는 'ㄱ'가 있으므로 '如'는 '觀牖隙 **見**无際虛空'을 명사구로 취하는 술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方便引'의 경우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우선 21(·)이 '方便引'에 찍힌 것인지 '引'에 찍힌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구문의 현토자는 이 구문의 각종 부호를 검토해 보면 '方便引'과 '觀牖隙' 그리고 '入无際限中'과 '**見**无際虛空'을 서로 대응이 되는 요소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3자씩 수직으로 관통하는 주선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글자에도 어순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토자가 파악한 구문은 아래와 같다.

(16) …… 入无際限中함은/하니 …… **見**无際虛空함과 같다.

이런 점에서 '方便引入无際限中'을 '引入'을 동사로 '无際限中'을 부사구로 파악하여 '方便 **引入** 无際限中'으로 분절한 뒤 '제한이 없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이니'와 '방편으로 제한이 없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로 해석한 김천학(1998), 박상수(진행 중)의 논의는 위 (16)의 분석과는 다르다. 즉, (16)에서 '入, 見' 등은 각각 '无際限中, 无際虛空'을 부사구와 명사구로 취하는 동사이다. 결과적으로 『要決』의 현토자는 위 (14)의 구문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17) '**令**其見聞 **方便引 入**无際限中 **如 觀牖隙 見**无際虛空'

위 (17)의 분절은 『要決』의 부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볼 때 '方便引'과 '觀牖隙'을 관통한 선은 현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위 (14)의 구문을 아래 (18)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셈이다.

(18) '方便 **引入** 无際限中 如 觀牖 **隙見** 无際虛空'

지금까지는 『要決』의 수직 관통선의 기능을 合符이거나 해당 구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김성주(2009ㄴ:134~139)의 논의와 같이 『要決』의 수직 관통선은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합부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 위 (14) 구문의 경우를 보면 '方便引'과 '觀牖隙'을 각각 관통하는 선은 '引入'과 '隙見'이 각각 '无際限中'과 '无際虛空'을 지배하는 하나의 동사가 아님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方便引'과 '觀牖隙'을 관통하는 선은 '方便引'과 '觀牖隙'을 하나의 통사 단위로 묶어 주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젠 '方便引'과 '觀牖隙'의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方便引'과 '觀牖隙'은 하나의 관념어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음 華嚴典籍에 나타나는 용례를 근거로 '方便引'의 '引'과 '觀牖隙'의 '觀'을 동사로 보고 '方便'과 '牖隙'은 명사구로 본다.

華嚴經探玄記》卷18〈34 入法界品〉:「又釋新出小乘分別心家。已入三乘位。以鴦子是三乘之中法將故。引之新出。文殊是此一乘法將。**方便引**之。二其名曰下列名。比丘者梵有三名」(CBETA, T35, no. 1733, p. 452, a11-15)

《新華嚴經論》卷28〈26 十地品〉:「菩薩以大慈悲心皆同其行**方便引之**」(CBETA, T36, no. 1739, p. 913, c3)

《大方廣佛華嚴經疏》卷1〈1 世主妙嚴品〉:「諸慈悲者。於無盡中略此流傳。令尋於此見無邊法。如**觀牖隙**見無際空。而此時處即同無盡」(CBETA, T35, no. 1735, p. 503, c28-p. 504, a2)

《華嚴經疏注》卷1:「諸慈悲者。於無盡中。略此流轉。令尋於此。見無邊法。如**觀牖隙**。見無際空。而此時處即同無盡」(CBETA, X07, no. 234, p. 616, a3-5 // Z 1:7, p. 21, d18-p. 22, a2 // R7, p. 42, b18-p. 43, a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4)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9) '**令**其見聞{하며, 하니, 하여} **方便引**하므로 **入**无際限中하는 것은 **如 觀牖隙**하여도 **見**无際虛空함과 같다.'

(19') 그들을 보고 듣게 하며 方便을 끌게 하므로 無際限 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牖隙으로 보아도 무한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위 (19)를 보면 令[31(·)]의 31(·)은 종속절, 引[21(·)]의 21(·)은 주절의 어말어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1(·)은 '-하며'로 해석해도 자연스럽지만 '-하니'나 '-하여'와 같이 인과관계의 어말어미로 봐도 어색하지는 않다. 그래서 '令'의 왼쪽 單點은 31(·)에 해당하는 '旀'로 볼 수도 있고, 21(·)에 해당하는 '以'로 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 單點을 21(·)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김영욱(2003)/김성주(2009ㄱ)와 같이 令[21(·)]로 규정하지 않

고 小林芳規(2002)의 견해를 좇아 令[31(・)]로 규정한다. 31(・)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31(・)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要決』 부호구결의 체계가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 (19)에서 '令其見聞'의 '其'는 앞 문장의 '下劣衆生'을 가리킨다. 앞 문장은 물음에 대한 답이므로 그 물음과 함께 위 구문의 앞 문장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

(20) 〈07:24-28〉 問上言如(因)陀羅網重ㅅ[주서_]无盡時劫常說此經者[주서_]說花嚴[3자합부]會[23(・)]惣无了時[주서_]何容[주서ㄱ]有[주서ㄷ]此一部經敎[주서ㅣ]

答有二義一義者為下劣衆生[주서_]於无盡說中略取[주서ㄷ]此亦結集流通[주서ㅣ]故有此部[주서_]

(20') 〈연구팀 번역〉 묻는다. 위에서 말하기를, "因陀羅網이 重重한 것처럼 다함 없는 時劫에 항상 이 經典을 說한다."고 하였으니, 華嚴을 설하는 會는 모두 마칠 때가 없는데, 어찌 一部 經典의 가르침을 용납함이 있겠는가?

답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미는 下劣한 衆生을 위하여 다함 없는 敎說 중에서 略하여 이들 結集 流通할 것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部가 있다.

그들을 보고 듣게 하며 方便을 끝게 하므로 無際限 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牖隙으로 보아도 무한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위 (20)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14)를 31(・)은 '旀'에 대응하는 '-하며', 그리고 21(・)은 '以'에 대응하는 '-으므로'로 규정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 구문의 31(・)과 21(・)을 모두 '-하여'로 보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다.

(21) 그들을 보고 듣게 **하여** 方便을 끌게 **하여** 無際限 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牖隙으로 보아도 무한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글에서 21(·)과 31(·)을 '-하여'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8세기 자료에서 '爲良/ᄒᆞᆫ'의 '良/ᄒᆞᆫ'에 해당하는 형태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여'에 대응하는 點吐는 『要決』의 點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14)에서도 21(·)의 기능이 8세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以'에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1(·)의 기능을 중심으로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나타나는 부호구결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 글에서는 8세기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와 그 기능을 고려하여 21(·)의 기능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말음첨기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8세기의 이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以'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부호구결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구절선이나 역독선 그리고 어순지시 부호의 기능도 반영하여 현토자가 파악한 구문의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에 부호구결의 기능을 파악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要決』의 소박한 부호구결은 8세기의 신라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의 표기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은 일본의 오코토點이 초기에는 아주 간결한 체계를 보이다가 20~30년 사이에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는 점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일본으로 전래된 부호구결의 체계가 간결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격조사를 표기하는 문법형태가 8세기의 이두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자토구결 자료에만 나타나는 점은 이두문과 구결문의 관계나 오코토點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參考文獻

金星周(2009ㄱ) 佐藤本『華嚴文義要訣問答』의 口訣,『口訣硏究』23, 口訣學會. 67-94.

김성주(2009ㄴ), 사토본 『화엄문의요결문답』의 부호, 한국어문학연구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23-148.

김수태(2001)「新羅 村落帳籍 硏究의 爭點」,『韓國古代史硏究』21, 韓國古代史學會, 5-47.

김영욱(2003),「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口訣硏究』 제10집, 47-78.

金天鶴(1998),『화엄경문의요결문답』, 민족사.

南豊鉉(1988),「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국어국문학』 제100집, 233-242.

南豊鉉(2000),『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2),「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口訣硏究』 제8집, 77-93.

朴商洙(진행 중),「華嚴經文義要決問答 飜譯」, 韓國佛敎全書 飜譯팀, 東國大佛敎文化硏究所.

朴鎭浩(2003), 周本『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口訣硏究』 제11집. 口訣學會. 211-247.

朴鎭浩(2006), 晉本『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口訣硏究』 제16집. 口訣學會. 173-208.

박용식(2003ㄱ),「초기 이두 자료의 문법 형태」,『경상어문』9, 경상어문학회, 49-69.

박용식(2003ㄴ),『이두의 생략 표기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裵大溫(2002),『이두문법소의 통시적연구』, 경상대학교출판부.

오미영 · 김성주(2007),「日本 大東急記念文庫 所藏『華嚴刊定記』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19집, 63-105.
윤행순(200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기입된 한국의 각필부호구결(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훈점(訓點)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22, 일본문화학회. 1-14.
李丞宰(2004),「角筆 符點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口訣硏究』 제13집. 口訣學會. 289-316.
李丞宰外 13인(2006),『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角筆口訣 寫眞資料2 별책 포함).
李丞宰外 29인(2006),『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3 -周本 華嚴經 卷第六, 卷第五十七』, 태학사(角筆口訣 寫眞資料3 별책 포함).
장경준(2008), 點吐釋讀 硏究의 成果과 當面 課題,『口訣硏究』 제21집. 口訣學會. 67-98.
鄭在永(2000),「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연구」,『문헌과해석』 통권 12호, 문헌과해석사, 196-214.
鄭在永(2001),「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華嚴經』卷二十에 대하여」,『口訣硏究』 제7집, 33-56.
鄭在永(2006),「韓國의 口訣」,『口訣硏究』 17, 125-185.
鄭在永(2009)『華嚴文義要訣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硏究,『口訣硏究』23, 구결학회. 31-65.
鄭在永外 6인(2003),『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黃圭燦(1998),『新羅表員의 華嚴學』, 民族社.

石塚晴通(2002), 漢字文化圈의 加點史에서 본 高麗口訣과 日本語初期訓點資料,『口訣硏究』 제8집, 112-128.
小林芳規(2002),「韓國の角筆點と日本の古訓點との關係」,『口訣硏究』 제8집, 21-76.
小林芳規(2003),「八世紀の日本における角筆加點とその源流」,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 21-56.
小林芳規/尹幸舜 譯(2003),「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 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發見-」,『口訣硏究』 제10집, 5-30.
小林芳規/尹幸舜 譯(2006),「日本 訓点의 一原流」,『口訣硏究』 제17집 5-41.

[330-768 충남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8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리각]
E-mail: san1@dreamwiz.com
접수일자: 2009. 12. 18.
심사일자: 2010. 01. 11.
게재결정: 2010. 01. 31.

A comparative study of symbolic kugyol in the *Hwa'eom mun'ui yogyeol mundap* and the morphology of the eighth century Silla language

Park, Yong-sik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symbolic kugyol (符號口訣) found in the text of the *Hwa'eom mun'ui yogyeol mundap* 華嚴文意要決問答 (Sato edition), specifically those markings on the middle of the left side of a Chinese character (in the position 21(・)). These are compared with certain grammatical morphemes used in eighth century Silla *idu* texts, since the *Hwa'eom mun'ui yogyeol mundap* was written by a Silla Buddhist monk. The main function of the 21(・) marking has previously been understood to represent the objective cas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21(・) marking indicates both the sound of a final consonant and a connective verb suffix which shows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It is also argued that the very simple system of the symbolic kugyol of the *Hwa'eom mun'ui yogyeol mundap* is closely related to the simple system of early Japanese *kunten*, which was originally adopted from Silla.

Keywords: *Hwa'eom mun'ui yogyeol mundap*, symbolic kugyol, eighth century, *idu*, grammatical morphemes, *kunten*